

걸그룹을 둘러싼 모험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Adventure in Girl Group world : Survival in the Risk Society

저자 (Authors)	정윤수 Jeong Yoonsoo
출처 (Source)	대중음악 (8) , 2011.11, 99-125(27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8) , 2011.11, 99-125(2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10834
APA Style	정윤수 (2011). 걸그룹을 둘러싼 모험. 대중음악(8), 99-125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1/08 16: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걸그룹을 둘러싼 모험: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정운수(문화평론가, 성공회대 석사과정)

1. 들어가며
2. 걸그룹, 로리타? 여동생?
3. 소녀, 만들어진 표상
4. 삼촌팬과 '유사 가족주의'
5. IMF 이후, 불안의 연대기
6. 자기에의 몰입,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7. 나가며: 불안 증폭과 유사 가족주의 혹은 소녀애

이 글은 21세기 들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걸그룹' 현상을 분석한다. 걸그룹 현상은 1990년대에 등장한 'S.E.S'와 '핑클'을 시작으로 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원더걸스'와 '소녀시대'를 앞세우고 '카라', '브라운아이드걸스', '2NE1', 'Miss A', '애프터스쿨', '포미닛' 등이 저마다의 스타일로 한국대중음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고전적인(따라서 새로우면서도 풍성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는) 이해는 '성 상품화'의 관점일 것이다. 남성 소비자의 관음적 시선에 적합하도록 철저히 계산된 음악마케팅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이다. 이 견해는 걸그룹 현상을 판단하는 데에서 움직일 수 없는 기본 요소가 되지만, 그러나 10여 년이 넘도록 대중음악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코드와 스타일로 전개되는 걸그룹 현상의 다층적인 요소를 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도 걸그룹 현상을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성 상품화'의 관점을 취득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그것을 '소녀애'

라는 관점에서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기록(주로 문학)을 참조해 그것이 매우 장구한 시간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선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글은 걸그룹 현상을 1997년 ‘IMF 사태’ 이후 급변한 한국의 사회 상황 속에서 살피고자 한다.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었으며, 몇 차례의 정치적 계기(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굴욕적인 대미 무역 협상에 대한 촛불 시위 등)가 있었음에도 일반 시민들의 내면에는 무한 경쟁에서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 의식이 증대했다. 이 불안 의식은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가중되는 실업과 취업난, 거시적 차원의 생태계 위기와 개인적 차원의 건강 공포증 등이 결합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취향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그 하나는 레저/스포츠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문화에 대한 탐닉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걸그룹 현상’이 단순히 ‘성 상품화’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 아니라 가중되는 불안 의식에 의해 시간이 멈춰진 상태를 동경(또는 역행)하려는 심리의 한 반영으로 해석한다.

핵심어: 아이돌, 걸그룹, 소녀, 소녀애, 가족주의, 신자유주의, 위험사회

1. 들어가며

이 글의 직접적인 관심은 최근 몇 년 동안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의 지속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걸그룹의 지속적인 인기는 무시하기 어려운 주류 대중음악계의 기획력과 걸그룹 스타들의 다양한 기표의 발산에 따른 것이거나 우선 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일별한 후, 시선을 조금씩 텔레비전의 바깥으로 돌려 ‘즉시 용해되기 쉬운 희미하고 작은 부호’(에른스트 블로흐)들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다양한 기표의 발산을 통해 다른 차원과 맥락에서 끝없이 의미를 생산/재생산하는 걸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사회적 맥락에서 굴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집합적 열정의 무늬가 무엇인가를 탐사하는 데 최종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세상의 매듭은 오로지 실존의 직접적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희미하고 작은 부호로서, 예견하는 시각에 의해 포착되지만, 즉시 용해”¹⁾된다고 말했거니와, 나는 그런 ‘실존의 직접적 사실’(들)이 기억의 골짜기에서 무의미하게 방치되거나 헤아릴 길 없는 디지털아카이브의 한낱 부호로 전락되기 전에, 서둘러 그것을 헤아리고 재구성함으로써, 걸그룹의 ‘지속 가능한 인기’를 뜻밖의 열쇠를 통해 더듬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한국 사회의 열병과 열정들, 그 집합적 초상화의 밑그림을 크로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꽤 오랫동안 품어왔으니, 이 글의 단초가 바로 그것이다.

2. 걸그룹, 로리타? 여동생?

차우진과 장유정이 이미 밝혔듯이, 핑클이나 S.E.S로 대표되는 1990년대 후반의 걸그룹이 청순한 소녀 혹은 귀엽고 예쁜 요정의 이미지를 발산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걸그룹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섹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1)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제2부 기초적 논의 - 선회하는 의식, 박철호 옮김, 열린책들, 2004, 625쪽.

차우진은 “원더걸스와 소녀시대를 비롯해 2NE1과 카라, 브라운아이드걸스, 애프터스쿨, 포미닛 등이 비평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동시대에 의한 한국 대중문화 트렌드를 주요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들에 대해 이를테면 ‘성의 상품화’ 혹은 ‘기획사의 기획물’ 등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한 듯하지만 매우 게으르고 진부한 관찰일 뿐이며 오히려 “이들의 음악적 성취 역시 가시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평적 대상의 자격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차우진은 “2NE1과 포미닛은 소녀들을 선동하고 카라와 소녀시대는 소년들의 판타지를 자극한다. 브라운아이드걸스는 걸그룹이 어떻게 성별 차이에 따른 소비방식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애프터스쿨은 걸그룹이 단지 소녀 이미지를 반복 재생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²⁾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장유정은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격렬한 몸동작을 보여준다. 이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강인하고 중성적인 여성과 자유분방한 여성상을 표방한다. 그러면서도 강인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이 섹슈얼리티와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가죽옷과 레깅스, 빨간 입술, 몸의 굴곡을 강조하면서 추는 춤이 그러한 요소”³⁾라고 보았다.

차우진과 장유정의 독법은 걸그룹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즉 ‘기획사에 의한 철저히 계산된 문화 상품’이라는 생산적 측면과 ‘소녀애를 소비하는 남성적 시선’이라는 소비적 측면의 익숙한(혹은 정치적으로

2) 차우진, 『걸그룹 전성기』, 『문화과학』 통권 59호(2009년 가을), 문화과학사, 2009, 278쪽.

3) 장유정,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고찰』, 『대중음악』 6호, 한국대중음악학회 펴냄, 한울, 2009, 174쪽.

올바른), 따라서 진부하고 지루한 독법에서 벗어나, 비록 남성적 시선을 의식해 기획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들 간의 차이와 특성은 뚜렷이 존재하며 수용자들은 저마다의 문화적 맥락에서 걸그룹을 능동적으로 판별하고 재구성하고 있음을 주목하려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자칫 진부한 독법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걸그룹의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 이외의 활동과 이미지를 지나치게 주목해 ‘성별 차이에 의한 소비 방식의 극복’(차우진)이라거나 ‘강인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장유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될 우려가 높다.

예컨대, 같은 글에서 차우진은 걸그룹이 “순종적인 소녀와 반항적인 소녀의 이분법을 벗어나 성인 여성을 대중가요 시장에 안착시키면서 사운드와 비주얼, 콘셉트와 퍼포먼스가 지향하는 의미를 동시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걸그룹의 개별 정체성은 의미심장하다”⁴⁾고 평가한 것은 “성별은 항상 헤게모니적인 규범들의 반복으로서 산출된다”⁵⁾는 주디스 버틀러의 명제를 참고할 때, 조금은 험거운 표피적인 관찰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버틀러에 기대어 말하자면, ‘여성성’이란 여성의 본능이나 생물학적 특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남성적 시선이라는 최종심급에 의해 재현되는 구성물이며 그 하위 구성물인 ‘소녀’, ‘팜므 파탈’, ‘중년 부인’ 심지어 ‘여성 전사’마저도 남성적 시선의 피조물인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맥락적 이해이다. ‘소녀’ 혹은 ‘여성 전사’가 그 자체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독도법의 좌표가 되어서는 곤란한 일이며 그 어휘, 또는 이미지, 또는 재현된 방식이 어떤 사회적 문맥에서 부유

4) 차우진, 『걸그룹 전성기』, 282쪽.

5) 주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옮김, 인간사랑, 2003, 203쪽.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바, 이 점에서 걸그룹의 ‘개별 정체성’은 여전히 ‘걸그룹’이라는 집합적 표상 안에 갇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장유정이 강조한 “비슷한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다름과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⁶⁾의 중요성은, 단어 그대로, 중요하다. 하지만 2009년 이후 2년여 동안 전개된 걸그룹의 활동 패턴이나 그것을 매개하는 매스미디어의 전략과 또한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열개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장유정이 그 글에서 걸그룹의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힌 것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녀, 만들어진 표상

걸그룹, 곧 소녀들의 연예 활동에 대해 주목할 만한 어휘는 ‘소녀’ 그 자체이다. 박숙자의 연구에 따르면 ‘소녀’라는 표현이 한국 문학에 출현한 것은 1917년에 발표된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이다. 박숙자에 따르면 “그 전에도 ‘소녀’라는 기표가 사용되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소녀’로 사용되지는 않았다.”⁷⁾ 박숙자는 『의심의 소녀』를 비롯해 이광수 등의 근대 문학 초기의 기록들에서 손쉽게 발견되는 소녀의 표상, 곧 ‘홍조’(분홍빛 뺨)나 ‘로맨틱한 사랑’, ‘연애에 대한 공상’ 등의 근거를 추적하면서 ‘근대적 소녀’의 담론화란 “육체 속에 새기는 내면

6) 장유정,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고찰』, 194쪽.

7)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97집, 한국어 문학회, 2007, 272쪽.

화 작업”으로 그 표상은 “남성 주체의 판타지”임을 밝혔다. 박숙자에 따르면, 1932년 2월 『삼천리』는 당시 이화여전에 재학 중인 김현순의 민요 합창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싣고 있다.

金顯順 씨! 각지의 공연무대에 나타나서 수천 청중을 뇌쇄식혔습니
엇지 비둘기 가치 청초한 양의 자태에만 매엇스랴.⁸⁾

비록,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그룹의 ‘표상된 소녀 이미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의 초기에도 ‘비둘기’ 같은 자태로 ‘수천 청중을 뇌쇄’시켰다는 언술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근대적 주체[곧 남성적 시선, 다시 말해 생물학적 남성만이 아니라 권력적 시선을 장악한 남성의 시선과 그것을 내면화한(여성까지 포함해) 사회적 시선]의 관점에서 “소녀의 몸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없는 거세된 몸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적인 판타지로 가득한 몸”이 되고 “‘홍조 땀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순진하면서도 고결한 몸이며 감성적인 소녀 표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낭만적 사랑의 연기자이기도 하다. 즉 소녀가 육체적인 특성으로 표상되지만 그 육체성은 근대 윤리나 사랑의 이름으로 봉합되면서 소녀 표상에 내재한 강력한 판타지가 역으로 소녀를 기호화”(박숙자)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근대적 주체는 배제, 추방, 감금, 포섭 같은 방식만이 아니라 허구적 낭만화의 그물의 짜서 그 안에 타자를 구축하고 “주체의 판타지를 타자의 몸에 각인시킴으로써 오히려 타자성의 흔적조차 지우며 타자를 구성”(박숙자)하는 것은(오정희의 강렬한 소설 『중국인 거리』와 같

8) 『五大學府 出の 人材 언. 파렛드』, 『삼천리』, 1932.2, 18쪽;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274쪽에서 재인용.

은 회대의 문제작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2000년대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문학평론가 김형중은, 특히 김훈의 『언니의 폐경』을 도해하면서 강조한다.

김형중은, 이상의 ‘금홍이’(『날개』), 장용학의 ‘안지야’(『원형의 전설』), 최인훈의 ‘은혜’(『광장』), 황석영의 ‘심청’(『심청』)⁹⁾, 방현석의 ‘리엔’(『랩스터를 먹는 시간』) 등의 여성 주인공이란, 스스로 말하지 않는(못하는) 하위 주체로 “남성들의 실현되지 못한 꿈”¹⁰⁾으로 재현되어왔다고 말한다.

예컨대, 최인훈의 『광장』은, 근대 주체에 의해 낭만화된 ‘꿈’으로서의 ‘여성성’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 이명준은 낙동강 전투 와중에 어느 굴에서 두 번째 애인 은혜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 한 대목이다.

단추와 가죽 허리띠를 끌러낸 풀빛 루바시가 윗저고리를 벗긴다. 그녀의 드러난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그 가슴속에서 만 가지 소리가 들린다. (중략) 이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 수컷이면 그만이다. 이 햇빛, 저 여름 풀, 뜨거운 땅. 네 개의 다리와 네 개의 팔이 굳세게 꼬여진, 원시의 작은 광장에, 여름 한낮의 햇빛이 숨 가쁘게 혈떡이고 있었다. 바람은 없다.¹¹⁾

여기서, 이명준은 식민과 독립, 분단과 전쟁을 온몸으로 투과한 주

9) 김형중은 남성 주체의 낭만화된 여성상의 문학사적 예로 황석영의 경우 『심청』의 『심청』을 들고 있으나 같은 작가의 단편 『물개월의 새』의 군부대 인근 술집 여성이 좀더 피사계심도가 깊은 사례라고 하겠다.

10) 김형중, 『성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통권 132호), 창비, 246쪽.

11) 최인훈, 『광장』, 문학과지성사, 1989, 146쪽.

체이며 비록 전투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은혜는 “명준은 일어나 앉아 여자의 배를 들여다봤다. 깊이 패인 배꼽 가득 땀이 괴어 있었다. 입술을 가져간다”는 묘사에서 확인되는 대상일 뿐이다. 여러 번의 개작을 통해 최인훈은, 특히 이 대목에서 은혜가 딸을 임신하는 것으로 암시하며 끝을 맺게 되는데, 이에 대해 김현이 “여자의 배를 바다의 표상으로 보는 것은 인류의 오랜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쓰고 “은혜의 배는 바다이며, 그녀가 수태한 아이는 그가 뿌리내린 물고기”¹²⁾라고 불문학적 상상력의 독법으로 해석했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이 또한 남성 주체와 그 대상으로서의 여성(그리고 더 정확히는 여성의 몸)이라고 하겠다.

김현이 이 소설의 해설을 쓰면서 제목으로 삼은 ‘사랑의 재확인’ 역시 온갖 정치적 쟁투와 역사적 난관과 사회적 갈등을 헤쳐 나온 남성이 마침내 도달하는 마지막 귀결점으로서 강조되는 하얗게 표백된 ‘낭만적 사랑’이라는 점에서, 『어둠의 핵심』의 전달자 말로우가 ‘공포, 공포’ 하며 죽어간 커츠의 최후를 전하러 런던의 약혼녀를 찾아가서는 그 종말적 선언 대신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노라고 거짓 말을 한 문맥을 떠올리게 한다.

여성은, 언제나, 표백된 채로 밀폐용기 안에 갇혀 있다가, 때로는 ‘소녀’로, 때로는 운명의 아이를 낳는 ‘마지막 여인’으로,¹³⁾ 때로는 거

12) 김현, 『사랑의 재확인』, 『광장』, 문학과지성사, 1989, 287쪽.

13) 예컨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장승업은 한사코 애를 갖기 위해 성관계에 몰두한다. 이때 여인(유호정 분)은 장승업의 아이를 낳아주는 육체로서의 여성일 뿐이며 카메라는 여인의 허벅지에 뿌려지는 정액을 포착함으로써 개인으로나 예술가로나 실패했음을 예감하는 ‘역사적 남성 주인공’ 장승업의 고뇌를 은유한다. 이 순간, 역시 여인의 허벅지는 ‘끝없이 줄을 찢는 세월의 물결한 살점’(이민하)의 엇나간 표적지로 전략할 뿐이다.

친 풍파를 헤치고 나온 자를 보듬어주는 ‘어머니’로, 남성이 그때그때 호명할 때마다 락앤락의 바깥으로 호출된다.¹⁴⁾

4. 삼촌팬과 ‘유사 가족주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걸그룹을 통해 서둘러 ‘극복’이나 ‘해방 의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왜 여전히 그 시선이 완강하게, 다양한 변주를 통해, 관찰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손쉬운 구호를 채택하기보다는, 더 근원적인(따라서 매우 어려우면서도 장구한) 연대와 모색을 끈질기게 해나갈 수 있는 독도법을 얻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수아가 이른바 삼촌팬의 팬덤 현상에서 더욱 정교하게 확산되는 소녀 이미지의 불거리화에 주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보기에 “소녀시대는 순백색 의상과 긴 머리와 같은 소녀 이미지에 안무의 변화 및 허벅지를 다 드러낸 치마와 같은 의상을 통해 성적 코드를 가미했다. (중략) 두 소녀 그룹은 후속곡들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소녀 이미지에 성적 코드가 가미되었음을 보이기 시작한다. 원더걸스의 〈텔미〉 및 〈소햇〉의 의상과 안무, 소녀시대의 막대 사탕 이용 및 군복을 연상시키는 의상과 다리를 강조하는 안무 등, 소녀들이 점차로 미성년에서 벗어나면서 발표하는 곡과 콘셉트에서는 성적 코드는 점차로 강화”¹⁵⁾되고 있다.

14) 물론 남성의 ‘남성성’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상황극의 디렉션에 의해 다양하게 호출당하고 연기되는 것이지만, 이는 오늘의 주제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다만 생략할 뿐이다.

15)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불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그룹의 삼촌팬 담론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1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92쪽.

김수아는, 걸그룹을 ‘교태를 떠는 성숙한 여성이 아니라 수줍은 사춘기 소녀의 풋풋한 사랑’(강명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해 “소녀들을 보면서 하악거리는, 그녀들을 만지고 싶고, 자고 싶어 하는 남성들의 숨겨진 ‘롤리타 콤플렉스’를 적절히 꿰뚫은 마케팅의 성공 사례”(이규영)라는 주장이 한동안 인터넷의 논쟁점으로 떠오른 것을 바탕으로 해, 이른바 삼촌팬의 팬덤 현상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¹⁶⁾

이 징후를 들여다보면서 김수아는 이른바 삼촌팬이 ‘유사 가족주의’(이 용어는 필자가 선택한 것임)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틀림없이 걸그룹은 ‘성애 이미지’를 주제로 해 다양한 변주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삼촌팬은 “소녀 그룹의 매력을 어린이, 귀여움 등의 용어로 설명하면서 각 멤버들의 음악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자랑하거나, 소녀 아이돌 스타의 앳된 외모 및 애교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재능 있는 조카를 둔 삼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전 손택이 언급한 스타와 팬덤 사이의 ‘롤 플레이’를 빌려 김수아는 “성인 남성 팬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구성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위협적 존재가 아닌 유능하고 능력 있는 후원자로서의 삼촌이라는 존재를 롤 플레이 하고 있는 셈”¹⁷⁾이

16) 사실, 강명석과 이규영의 논쟁은, 마치 김연아의 연기가 끝난 후 링크 위에 떨어진 꽃다발을 수습하기 위해 재빠르게 스케이팅하는 사람들처럼, 대중문화의 표층 위에 던져진 익숙한(따라서 깊이 고려하지 않고 진부하게 집어든) 개념들을 무기 삼아 이분법적 난무를 춘 셈이기 때문에 걸그룹의 ‘사회적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채증 자료 이상의 의미는 지니지 않는다.

17)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불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그룹의 삼촌팬 담론 구성』, 116쪽.

라고 말한다. 그들은 “성년자에 대한 음험한 욕망을 감추기 위해 삼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10대 팬덤이 갖는 무모함, 오도된 열정의 함의와는 여러 가지 다른 활동 등을 통해 팬덤을 재의미화하려는 노력도 전개했다. 소녀시대 팬클럽에서 자연스럽게 결성되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갖는 소모임 ‘소원봉사단’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¹⁸⁾

자, 이것은 알리바이인가? 그럴 수도 있다. ‘유사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삼촌팬들의 적극적인 팬덤에 의해 적어도 걸그룹을 지지하고 후원하며 ‘조공’(스타에게 다양한 선물을 정성껏 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과거에는 팬의 입장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인형이나 액세서리가 주종이었으나 요즘에는 스타의 입장에서 건강과 기호에 맞는 음식이나 건강 보조식품으로 변화했다)까지 헌신적으로 하는 이들은 김수아에 따르면 “더 이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나 병리적 대상으로 간주”¹⁹⁾되지 않는다.

‘소녀애’를 위장하는 알리바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알리바이치고는 대단히 지속적이며 헌신적이고 집합적이다. 이들은, 자기가 성원하는 ‘조카’가 텔레비전에 나와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성애 이미지’를 드러낼 경우,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자체해주기를 꼭진하게 당부하기도 한다.

요컨대 걸그룹과 삼촌팬 사이에는 소녀애와 가족애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 이중나선의 간극과 긴장 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집합적 열정과 그 열병의 무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8) 같은 글, 113쪽.

19) 같은 글, 114쪽.

5. IMF 이후, 불안의 연대기

한 사내가 있다. 그는 도심 외곽의 ‘전원주택’에 간신히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나 이 보금자리는 곧 철거될 예정이다. 치매에 걸린 노모, 철거 계고장에 불안해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 사내는 성실했으나 세상은 오래 전에 이미 그의 편이 아니었다. 편혜영의 단편 『사육장 쪽으로』 이야기다. 이 끔찍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서, ‘그’는 규칙(강요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규칙 바깥은 처벌이다. 그는 분명하게 그려진 금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니, 나갈 수 없다.

매일 같은 시각에 집을 나서기 위해 같은 시각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비슷한 시각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에게는 줄음
이나 식욕, 성욕 따위도 시간을 지키며 찾아왔다.²⁰⁾

과적 화물차, 트레일러, 경고장, 파산, 가건물, 화공약품, 파티션, 화이트보드, 문서절단기 등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 안에서 ‘그’가 간신히 견사하고 있는 세계는 지금 위험하다. 노모는 치매에 걸려 종종 아랫도리를 입지 않고 방황하고 아내는 불안에 떨며 사무실의 동료들은 그야말로 ‘사무적’이다. 그 바깥은? 사육장이다! 수십 마리의 개가 곧 철거될 남루한 ‘전원주택’의 언덕 너머에 있다. 그 세계는 진실로 위험하다. 순간의 방심으로 겨우 견사한 세계가 무너질 듯한, 살얼음판 위의 위태로운 평형이 미세한 균열에도 풍비박산날 수 있는,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전개된다. 아이가 개에 물리게 되고, 다급하게

20) 편혜영, 『사육장 쪽으로』,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통권 132권), 창비, 2006, 122쪽.

‘그’는 병원을 찾는데, 병원은, 아뿔싸, 사육장 저 너머에 있다. 마치 ‘오발탄’의 21세기적 변주처럼, ‘그’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찾아 사육장 쪽으로 달려간다. 그곳은 위험하다.

편혜영의 이 작품은, 다층적인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두고 말하거니와, 틀림없이 IMF 이후의 한국 사회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으로 정확하게 채집한, 위기의 표본채집이다. 소설의 끝에서, ‘그’는 개 짖는 소리를 따라 결국 “사육장 쪽으로 가기 위해 속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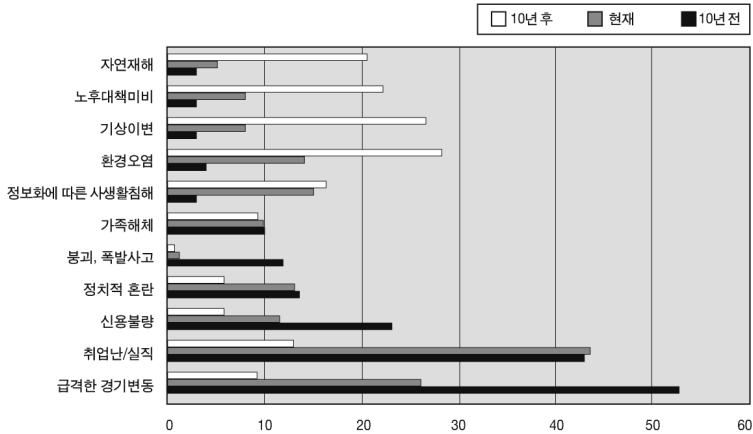
한동안 그런 삶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그 여진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영찬이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급격히 전면화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믿음이나 확신은 배반되는 현실이 닥칩니다. 때문에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오로지 어떻게 품위를 잃지 않고 견딜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현실을 모른 척하고 피해가면서 그와는 전혀 다른 자족적 영역에서 자아의 확장과 개인의 윤리를 찾을 것인가가 문제시 되는 시대”²¹⁾라고 진단한 것은, 이와 관련한 수많은 사회조사 자료를 참조할 때, 분명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몇 가지 예증을 보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2007년도 조사²²⁾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비록 소득 수준 2만 달러를 유지하는 OECD 회원국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10년 전에 비해(그러니까 IMF 위기가 불어닥친 1997년 이후 10년 동안) 불안과 불신이 크게 팽배한 사회로 변해왔다. 대규모의 자연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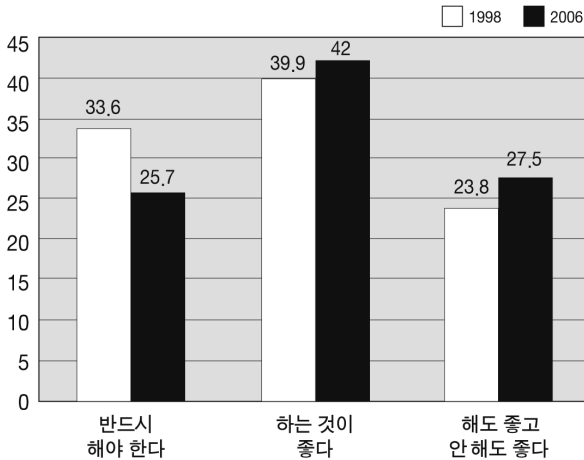
21) 김영찬 외 좌담 「우리 문학의 현장에서 진로를 묻다」,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통권 134권), 창비, 2006, 168쪽.

22)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IMF 10년간의 경험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7. 이 조사는 2007년 조사 시점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조사한 것임.

<그림 1> 주요 가치관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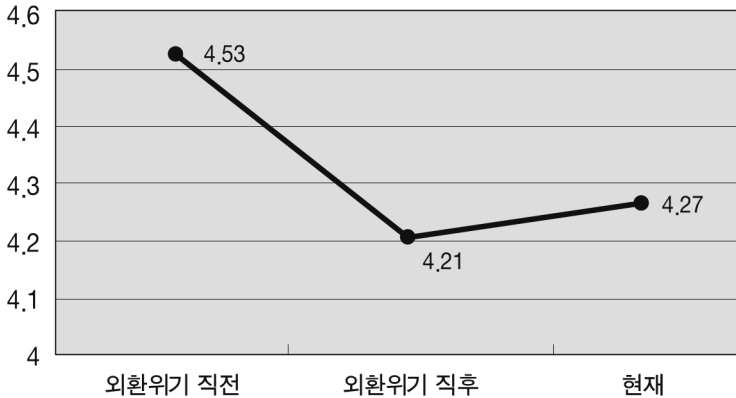


<그림 2>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경 재난, 청년 실업과 비정규 양산, 고용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제적 양극화, 차별과 배제의 증가에 따른 무력감, 노조 조직률의 약화와 사회 안전망의 부실 등에 따른 불안의 체감 온도가 IMF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이다.

<그림 3> 중산층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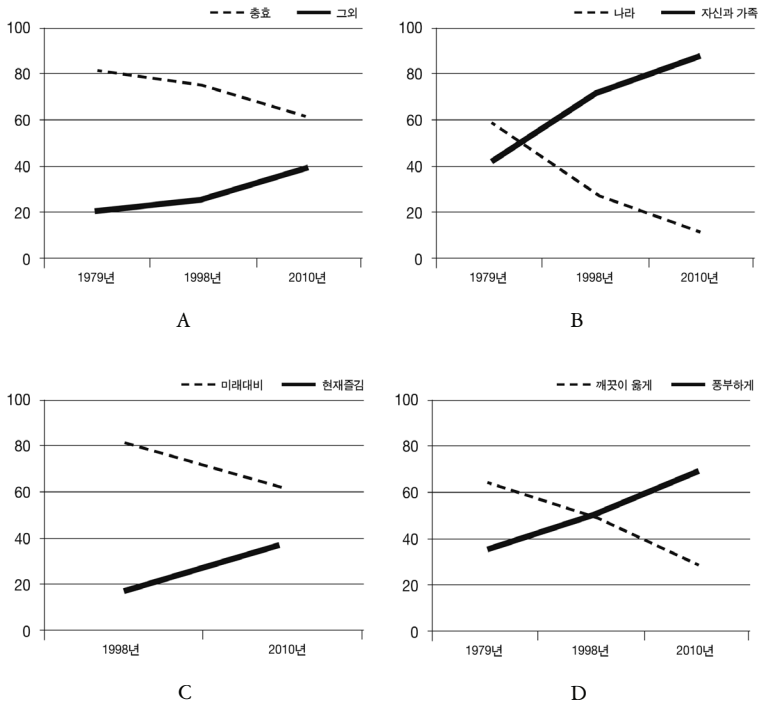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만성적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그 과정의 비극적인 매듭으로 가족 해체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나 간접 경험에 따른 감각적인 공포 의식은, 이를테면 기존의 가족 구성 개념에서 기초적인 의례로 여겨지던 결혼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게 된다.

이러한 불안과 위기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위기 이후 10년 만에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히 줄게 된다. 2007년의 경우, 10명 중 3명만이 중산층 귀속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에는 나은영과 차유리의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²³⁾를 참조해보자. 나은영과 차유

23) 나은영·차유리,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010, 63~93쪽. 이 조사는 1979년과 1998년의 가치관 조사에 이어 2010년의 조사 결과를 더해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 및 각 시, 군, 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각 100명씩 할당

<그림 4> 주요 가치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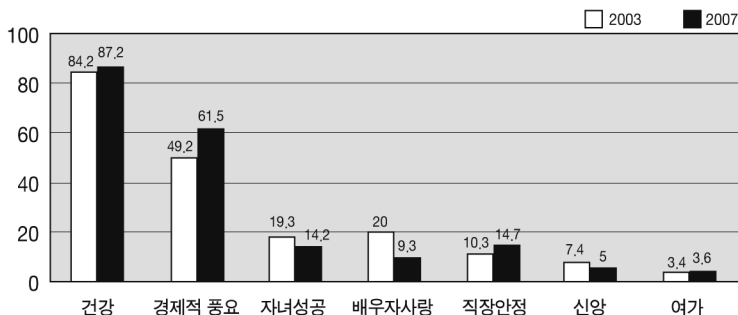


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적 위계 서열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개인의 가치관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그림 4>의 표 A와 B처럼, 근대의 한국을 떠받들었던 ‘충효 사상’이나 ‘나라’, ‘국가’ 등에 대한 인식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표 C에서 보듯이, 현재를 미래의 평안을 위한 유보 기간으로 보던 과거와 달리, 지금 당장의 삶에서 가치와 즐거움을 찾

표집한 800명에게 개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1998년과 2010년의 변화 조사를 주로 인용했다.

<그림 5>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7년.

주: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2003년도 조사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자 하는 욕망 또한 두드러졌다.

가치의 실현 측면에서도, 표 D가 말해주듯이, ‘깨끗하고 옹계’ 사는 것보다 ‘풍부하게’ 사는 쪽으로 관심이 기울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2007년 조사에서 건강에 대한 강력한 관심의 증대(<그림 5>)가 발견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건강에 대한 갈망은, 에른스트 블로흐가 밝혔듯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내재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의지는 갈망 속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 블로흐는 우리에게 말한다. “계획을 세워 도로에서 달리기를 계속하는 남자를 생각해보라.”²⁴⁾

그렇다면, 블로흐의 말을 따라 ‘계획을 세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24)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제4부, 구성 - 더 나은 세계관, 927쪽.

6. 자기에의 몰입,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일요일이면 갑자기 통제된 도로 위로 숨 가쁘게 달려가는 무리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 뒤로, 우리 사회에서 마라톤을 비롯한 레저 스포츠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은 익히 알고 있다. 유인진과 배은식의 연구에 따르면 IMF 직후인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평균 일일 여가활동시간이 7.1% 증가했으며(이는 정리해고 및 이른바 노동 시간 유연화의 역전된 상황의 반영인 측면도 있다) 그 유형 역시 과거처럼 관람형 여가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기 활동적인 여가 곧 레저스포츠로 급변해왔다.²⁵⁾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야가 마라톤이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마라톤은 일부 뛰어난 엘리트 선수들에게 한정된 종목으로 여겨졌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활성화된 생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마라톤협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약 513개 대회가 개최되고 대략 330만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왜 이렇게 뛰는 것일까? 어디 마라톤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헬스, 요가, 자전거, 축구, 야구, 명상, 걷기, 뇌호흡 등에 몰두한다. 이에 대해 이재희는, 예컨대 마라톤이 그 내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도전하는 매력적인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소비사회에서 요구하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엔 적절할 뿐만 아니라 마라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그 인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달라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파악한다. IMF 위기 이후 만연한 사회적 불안과

25) 유인진·배은식, 『여가활동의 변화와 경제활동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1999년과 2004년 생활 시간 조사 결과의 비교』, 『여가학연구』 7호, 2009, 89~111쪽.

공포를 견뎌내는 심리적 방어기제로서 마라톤(또는 그 밖의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 위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따라서 그것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는 바우만의 언급²⁶⁾처럼 IMF 위기는 정체 모를 불확실성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의 불안과 공포의 근거들 역시 인류가(적어도 한국 사회가)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다시 바우만을 인용하건대 “공포를 일으키는 위협, 그것은 설령 그 중 어느 것도 처치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살면서 내내 떨쳐낼 수 없는, 포착불가능한 동반자로 느껴진다. 인간은 공포 없는 삶을 살 수 없고, 유동적 근대의 환경은 도처에 위협과 위협을 깔아놓았다. 이제 일생 전체가 공포, 어쩌면 끝끝내 물리치지 못할 공포와의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진짜 또는 추정상의 위협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인생이란 끝없는 수색정찰의 과정, 그리고 압박한 위협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대책을 시도하는 과정이다.”²⁷⁾

‘위험사회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울리히 벡이 다소 묵시록적인 비판 아래 21세기의 인류가 전대미문의 무차별적인 위협 상태에 직면했으며 그 위협은 ‘특별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없는 탈지역화, 모든 계급과 계층을 위협하는 탈계급화, 그것의 피해 정도와 복구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계산 불가능화를 예로 들었거니와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크고 작은 위협들은 대체로 이 같은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26) 지그문트 바우만,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옮김, 산책자, 2009, 12쪽.

27) 같은 책, 21~22쪽.

겉보기와 달리 마라톤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는 종목이다. 입문 단계를 지나고 나면 고가의 신발, 셔츠, 시계, 고글, 마사지 오일, 호흡강화용 호흡기가 필수적이며 곳곳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그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상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준영이 적절히 분석했듯이, 마라톤의 대중화는 중산층의 사회적·문화적 욕망을 점점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김영갑은 이러한 운동 성향의 증가를 ‘상처 입은 중산층’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해한다.²⁸⁾ 그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적 실천 중에서 극기와 자기 통제의 수단으로서 마라톤, 조깅, 등산 등의 건강 스포츠”는 ‘상처 입은 중산층’의 욕구의 실현과 더불어 ‘계층 간 문화 정체성의 상호 교류’를 드러낸다. 사이클 동호회원들에 대한 정연수의 연구나 축구 동호인에 대한 이상덕의 연구도 이러한 레저스포츠에 대한 몰입이 단순히 레저스포츠에 내재한 쾌감에 대한 즉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의 연대기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필사적인 노력임을 입증해준다.

달리기는, 혹은 공을 치는 것은, 혹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목적과 방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 가능한 영역이다. 그것은 저 불안한 세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 세계, 그 공전으로부터 이탈되어 불안하게 자전하는 자기의 내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역으로, 그것이 더욱 세련되고 흥미롭고 발달할수록 더욱더 그 세계에 몰두하게 된다. 레저스포츠의 절묘

28) 김영갑, 「한국사회에서 운동중독의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2006, 42쪽.

한 ‘타이밍’의 일치(패스, 페달링, 심호흡, 슛 등)에 대해 『매혹과 열광』의 저자 한스 고프레히트가 ‘시간의 압력이 사라진, 즉 주어진 공간적 맥락에서 각각의 신체 동작에 상응하는 시간의 여지’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처럼, 스스로 구성한 세계의 공전과 자기 육체의 자전이 일치하는 순간의 희열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다.

7. 나가며: 불안 증폭과 유사 가족주의 혹은 소녀애

걸그룹의 지속적인 인기, 특히 삼촌팬의 열광적인 성원을 동반하는 뚜렷한 사회 현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두루 언급했다시피,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불안과 공포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가속화되었다. 두 차례의 민주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지없이 관철되었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그나마 유지되어온 민주 사회의 상식적인 제도와 관행마저 여지없이 무너졌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것의 유보 혹은 거부, 기존의 가족 제도가 아닌 가족군의 형성 등도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부실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일련의 흐름임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추세에 따라, 삼촌팬과 같은 유사 가족주의 문화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²⁹⁾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은 고통 없이 참가

29) 최근 대형 백화점에서는 결혼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고 살아가는 30대 싱글 여성들의 조카에 대해 갖는 애정을 겨냥한 이른바 ‘이모 마케팅’이 공세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매일신문』 2010년 5월 10일자, 『스포츠험럴』 2010년 9월 16일자, 『주간동아』 2010년 12월 27일자 등의 기사는 이러한 현상의 스케치로 유의미하다.

할 수 있는 형식에 대한 몰입이다. 문신을 하거나 피어싱을 하거나 세 시간이 넘도록 달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주체의 결단에 따라 조절 가능한 영역이다. 그 조절의 임계치 너머에는 스스로 빚어낸 조화로운 동산이 나타난다. 오늘의 30대 이상 세대가 이미 1992년의 ‘서태지 이후’ 세대임을 감안할 때, 다시 말해 대중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의 폭발력을 자기 내면의 동력으로 삼는 세대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자연스럽게 ‘소녀’라는 환상과 낭만의 공동체의 입주자가 되길 바라는 것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선택에 가깝다. 수전 손택의 ‘롤 플레잉’은 이 지점에서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10대 시절부터 대중문화와 인터넷에 익숙한, 아니, 그것을 자기 문화이자 미디어로 채택해 성장했고 새로운 세기 들어 그것의 폭발적인 영향력에 가담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른바 삼촌팬들이 소녀시대에서 2NE1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걸그룹을 저마다의 기호와 역할과 이미지로 소비하는 것은, 문화 과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어찌면 가장 심각한 이해 당사자로서) 불안과 공포의 강을 건너가야 하는 세대의 필연적인 선택³⁰⁾일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우 손쉬운 정치적 해결책으로, 불안 세대의 공포 해법은 ‘걸그룹’에 대한 이중나선, 곧 소녀애의 소비와 유사 가

30) 이 글이 ‘삼촌팬’ 현상에 주목했기 때문에, 뒤집힌 거울일 수도 있는, 여성의 팬덤 현상에 대해 거의 할애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는 이 글에 시도된 맥락에 따라 이를테면 ‘현빈 신드롬’을 아울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빈 신드롬’은, 어느 국회의원의 상식 이하의 발언처럼 ‘사회 지도층의 바람직한 자세’에 열광한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의 강을 건너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한없이 자애롭고 유머 있고 넉넉하게 자신을 감싸줄 수 있는 문화적 기제로 선택한, 말하자면 거꾸로 뒤집어놓은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족주의가 아니라 당장 광장으로 나가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잠시 비껴 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즐거운 정치적, 혹은 문화적 해법이다. 이미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확인되었다시피, 미증유의 공포와 파탄 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실천은 그 맥락과 문법 속에서 다채롭게 전개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은 줄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의 맥락 안에서의 새로운 독도법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꾸준히 살핀 바와 같이, 소녀애와 유사 가족주의가 이중으로 겹쳐 있는 최근의 걸그룹 열풍 속에서 낭만화되고 고착화된 ‘기표로서의 타자성’을 해체하는 것, 그 문법의 바깥에서 문법 해체를 시도하는 것은 비평적 관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작업은 ‘소녀애’와 ‘유사 가족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집합적 열정이나 열병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몰입의 정념이 고착화된 ‘소녀애’와 연기로서의 ‘유사 가족주의’를 넘어(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크로스바를 뛰어넘는) 사회화의 진경으로까지 이행하는 것을 도모할 때 좀더 값진 지적 모색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은, 그 과정을 위한 증거 자료 채집으로서 작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형중, 『단 한권의 책』, 문학과지성사, 2008.
-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박설호 옮김, 열린책들, 2004.
-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옮김, 새물결, 2006.
- 쥬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옮김, 인간사랑, 2003.
- 지그문트 바우만,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옮김, 산책자, 2009.
- 최인훈, 『광장』, 문학과지성사, 1989.
- 김영찬 외 좌담 「우리 문학의 현장에서 진로를 묻다」,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통권 134권), 창비, 2006.
-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불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 소녀그룹의 삼촌팬 담론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1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 김영갑, 「한국사회에서 운동중독의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2006.
- 김형중, 「성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통권 132권), 창비, 2006.
- 나은영·차유리,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010.
-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97집, 한국어문학회, 2007.
- 윤인진·배은식, 「여가활동의 변화와 경제활동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1999년과 2004년 생활 시간 조사 결과의 비교」, 『여가학연구』 7호, 2009.
- 장유정,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고찰」, 『대중음악』 6호, 한국대중음악학회 펴냄, 한울, 2009.
- 차우진, 「걸그룹 전성기」, 『문화과학』 통권 59호(2009년 가을), 문화과학사, 2009.
- 편혜영, 「사육장 쪽으로」,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통권 132권), 창비, 2006.

Adventure in ‘Girl Group’ world — Survival in the Risk Society

Jeong Yoonsoo (Sungkonghoe Univ. Master of Arts course)

This is to analyze the so-called ‘Girl Group’ phenomenon, which has achieved the main stream in Korean pop music industry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Girl Group’ phenomenon began with ‘S.E.S’ and ‘Finkle’ back in ’90s, and ‘Wonder Girls’ and ‘Girls’ Generation’ are leading the Korean music scene also with the various styles of ‘KARA,’ ‘Brown Eyed Girls,’ ‘2NE1,’ ‘Miss A,’ ‘After School’ and ‘4Minute.’

I would point out that sex peddling is the main key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which is the result of well-calculated marketing strategy fitting the voyeuristic aspect of male consumers. This point of view is the basic factor to understand ‘Girl Group’ phenomenon but still it has the decisive limit to view multilayered factors of this phenomenon with various cultural codes and styles during longer than past 10 years.

I picked the ‘sex peddling’ viewpoint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However, I’d like to point out that it has been formed for a long time, based on the mainly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fter liberation in 1945.

Above all, this is to research the social conditions which have changed rapidly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After this, Korean society has been revealed to unlimited competition of Neo-Liberalism and regular citizens

have become extremely nervous about the excessive competition despite several political events including the birth of the Roh administration. This anxiety is the combination of high prices and unstable real estate, also high unemployment rate, the crisis of ecosystem in macroscopic view and the personal health anxiety in microscopic view.

Under this condition, the change of cultural taste of citizens is noticeable, which is shown as excessive indulgence in leisure, sports and culture. I would understand it as the fantasy of ceased time by the increasing anxiety, not as the result of ‘sex peddling’ marketing strategy.

Keywords: Idol, Girl Group, Girl, Nymphet, Familism, Neo-Liberalism, Risk Society

* 이 논문은 2011년 10월 6일에 투고되어 10월 31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